

김관영 지사, 3년차 첫 행보는 민생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메카노바이오 기반구축 현장·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사전점검 등일정 이어가

민선8기 반환점을 돈 김관영 지사가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1일 새벽 5시 40분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도매시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산물 가격 동향 전반을 살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양승업 전주원협 조합장 등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경매사, 종도매인 등 도매시장 관계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봄까지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 출하량이 감소해 농업인과 유통관계자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소비가 늘어나도록 경기 활성화에 더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생 일선을 살핀 김 지사는 오후 들어 전북대학교를 찾아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 생태계 육성 의지를 다짐과 동시에, 오는 10월 개최를 앞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전북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육성의 본진이자, 제22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리는 핵심현장이다.

김 지사는 그간 새로운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을 정하고 그린 바이오(농업·식품) 중심인 바이오산업을 레드바이오(의료·제약)와 오가노이드(유사장기)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의생명산업 거점화를 위해 지역 특화첨단기술 ‘메카노바이오’ 기반구축 현장을 점검하면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과 바이오산업 단계별 추



1일 김관영 도지사는 민선8기 3년 첫 행보로 새벽 5시 40분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도매시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산물 가격 동향 전반을 살피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진전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찬희 센터장(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 박효성 센터장(메카노바이오웰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메카노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체계 조성 현황을 보고 받고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시설과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 공사현장 점검 등이 진행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美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MIT 등과 메카노바이오 기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연구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전북

대의 연구진을 격려하면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흔들림 없이 조성하고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1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사전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개최식자인 삼성문화회관, 각종 회의·포럼이 이뤄지는 진수당·법학전문대학원 한옥동, 기업전시관이 설치될 대운동장, 만찬 장소인 실내체육관 순으로 진행됐다.

기업전시관은 이달 초 용역사를 선정하고 9월 시삽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300부스 규모의 기업전시공간으로 조성된다. 기업전시관 주변에는 도내 대기업 전시·시군 홍보부스를 운영해 도민의 관심을 높

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격상된 후 열리는 첫 국내 대회이자, 캠퍼스 내에서 열리는 최초 대회인 만큼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각종 프로그램에도 참여·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한인 비즈니스대회 현장점검을 통해 “대회 전까지 시설물 등이 안전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돌발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겠다.”라면서, “대회를 통해 국내외 경제인들에게 전북의 맛과 멋을 보여주고,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차별화 된 말산업 인프라 구축 필요”

새만금청, 말산업 특구 현장 방문·전문가 릴레이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7월 1일 전북 장수군 말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5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함께 유니크 메뉴(독특한 공간), 치유·웰빙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5대 특구 전략을 선정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 맞춤형 인프라 구축 등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새만금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천후 장수국제승마장, 승마체험·숙박·먹거리 등 복합시설을 갖춘 장수레저파크 등 말산업특구 일대를 방문하여 새만금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장수국제승마장은 마장마술, 장애물경기 등이 가능한 전천후 시설로 국내외의 승마 경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세미나 발제에 나선 전주기전대학 이성호 교수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친밀 외교를 위해 말목장에 각국 정상들을 초대하여 국제적



행사를 개최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새만금에도 대규모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말목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에 말 사육과 체험을 넘어 국제적 행사와 기업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말산업이 언어와 문화, 세대를 초월한 소통의 매개체로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새만금의 타 지역과 달리 장애가 없는 드넓은 부지가 펼쳐져 있어 말산업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면, 말목장과 휴양시설을 결합한 복합 말산업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각종 대회 유치,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전북자치도, 내수면 양식 관련 원스톱 인큐베이팅 복합공간 조성

총사업비 250억 투자·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건립 예정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김제시 백산면에 국내 최초 내수면양식의 교육·창업 원스톱 기관인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는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250억원(국비125, 도비 125)을 들여 분관동, 교육연구동, 합숙동, 임대형 스마트양식장 등 총 8개 동(연면적 1만1,200㎡)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 내수면 양식업은 전국 생산량 2위, 면적 1위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방식에 의존하여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실정

으로, 연구소는 내수면 양식업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는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과정이다.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에서

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각류 사육에 필요한 데이터(사료 급여량, 수온, DO, pH 등)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빅데이터화 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여 최적의 사육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ICT 기술을 활용한 감각류(원더리세우) 첨단양식 교육으로 연간 20명의 전문 수산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교육 과정은 이론·실습 교육 10개월을 수료 후, 교육생이 직접 최대 24개월의 임대형스마트 양식장(아쿠아팜)을 운영할 기회를 제공하여, 초기 창업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센터 내에 전북형 스마트양식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 입주 사무실을 임대한다.

아쿠아팜의 경우 R&D 기업의 실증 연구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연구동 내 연구시설을 입주 희망 기업에 분양해 전북형 스마트 수처리, 어종별 특화 사료 및 미생물 균주 개발 등의 연구를 촉진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지사, “폭염 시 근로자 안전 당부” 서한문 발송

폭염 대책 사전 추진·근로자 안전수칙 준수·쉼터 조성 등 안전사고 예방 등 당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 여름 폭염 대비 대책으로 도내 건설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운영질환과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5인 이상 건설사업장 1,573개소에 여름철 운영질환 예

방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와 각종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을 당부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여름철 마다 폭염으로 인한 운영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여름에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운영질환 207명(사망 4명)과 축산피해 362농가 14만 5천 두·수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에도 기상청은 폭염이 극심할 것으로 예

보고 있는 실정에서 각종 사업장내 운영질환 예방이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폭염 대응을 위해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별로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추진과 취약 분야인 근로자, 농업인,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취약시간 14시~17시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연구원,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착수

생활실태·복지교육 파악 후...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 예정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장기간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날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며 3개월 이상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고립은둔 청년으로, 현재 은둔

생활을 하고 있거나 과거 은둔 경험이 있는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과 그 가족이다. 조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QR코드 또는 링크(https://think2024) 접속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립 은둔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14개 시·군과 연계하여 실태조사 안내 전단지 등을 관내 모든 읍면동에 비치할 예정이고, 도내 사회복지관과 편의점 등의 민간기관에도 안내 전단지를 부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거나 전북연구원 지치·복지·교육팀(063-280-7137)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도시 새마을사업 공모

김제 김산동 선정... 18억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도시 새마을사업 공모’에 김제 김산동 성당지구가 최종 선정돼 국비 1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된 김제시 김산동 성당지구는 인근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것에 비해 고령인구 및 주거취약계층이 전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노후한 주택, 좁은 마을도로, 노후화된 담장 등 위생, 안전의 기초생활인프라 생활여건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김제시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18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해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붕괴위험 담장 정비, 안전헬스 설치, 공·폐기 철거, 노후 골목길 포장정비, 집수리 지원, 주민참여 마을정원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3000만원 이상 고액채납자 129명 하반기 출국금지 조치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채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8일 하반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채납자 129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국 금지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시·군 요청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출국금지자 129명 중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9명이고, 50명은 기 출국금지자의 기간 연장에 해당한다. 이들의 총 채납은 143억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채납한 자 중 압류 및 공매·담보 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국외 이주 또는 채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방세 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



세계농업대학 설립 협약식

1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나경교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교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기념촬영을 가지고 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나경교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교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기념촬영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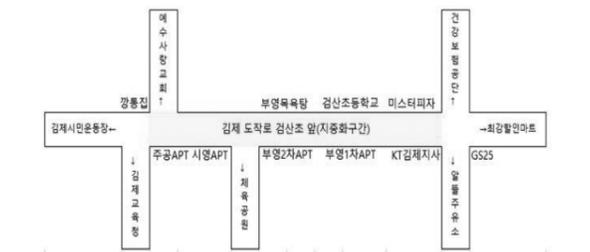
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채납자, /이만호 기자

기(既)출국 금지자 중 연장이 필요한 자 등도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만호 기자

전력공급선로 지중화 확정지역 공고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지중화 확정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중화 공사의 목적: 김산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 지중화 확정지역: 김제시 도차로 김산초 앞 (비사벌사거리 ~ 김산중삼거리) 0.6km
3.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2024년 11월 ~ 2025년 12월
4. 신·증설 고객의 지중공급 시행 기준일: 공고일로부터 30일 초과일
5. 지중화 지역 역도



6. 지중화 공사의 시행범위
 - 지자체가 지중화를 요청한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설비와 도로와 교차하는 1블럭 이내의 지선도로에 접하는 지역 내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설비
 - 이면도로가 없는 지선도로(마타나 골목)인 경우에는 간선도로로부터 50m까지의 가공설비
7. 고객 안내사항
 - 지중화 확정지역의 신·증설 고객은 신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면 전기공급안내 및 신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지중화 확정지역에서의 신·증설 업무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7월 2일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사장